

리얼 오리지널



2025 학력평가 + 내신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 37년 기출 모의고사

16회 [학력평가 기출 12회
실전 모의고사 4회]

- 2022~2024 최신 3개년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12회
- 학평 + 내신 대비 3·6·9·11월 [고1] 실전 모의고사 4회
- 학교시험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한 필수 기출 문제집
- 모든 선지에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수록한 입체적 해설
- 고난도 문제도 혼자서 학습이 충분한 [문제 해결 꿀팁]
- 해설에 [문제와 보기]를 모두 수록해 학습 효과 UP
- 회차별 [등급 컷·SPEED 정답 체크표·STUDY 플래너]
- [특별 부록] 국어 문법 총정리

4회분
실전 모의고사
수록

The Real series ipsifly provide questions in previous real test and you can practice as re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고1 국어

전국연합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고1 국어 16회

Contents

- [특별 부록] 국어 문법 총정리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회	2024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09쪽
02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25쪽
03회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1쪽

II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회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57쪽
05회	2023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73쪽
06회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89쪽

III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7회	2024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5쪽
08회	2023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21쪽
09회	2022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37쪽

IV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53쪽
11회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69쪽
12회	2021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85쪽

V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01회	2025학년도 3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201쪽
02회	2025학년도 6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217쪽
03회	2025학년도 9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233쪽
04회	2025학년도 11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249쪽

● [정답과 해설]

● 별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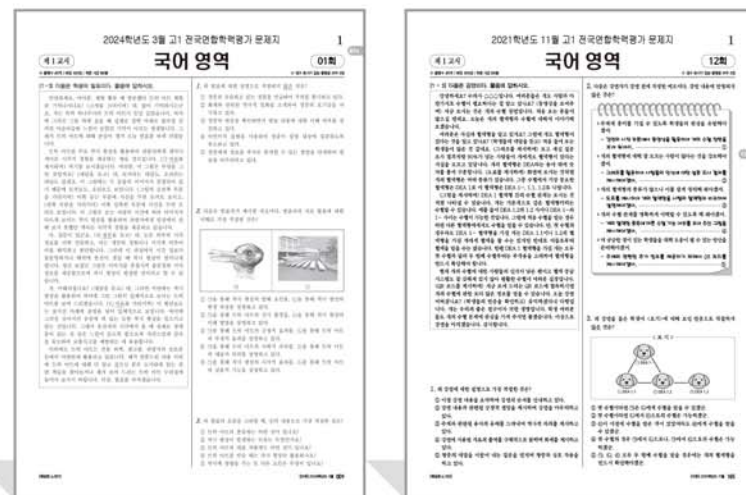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리얼 오리지널'

수능 시험장에 가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연습은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01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고1 국어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총 16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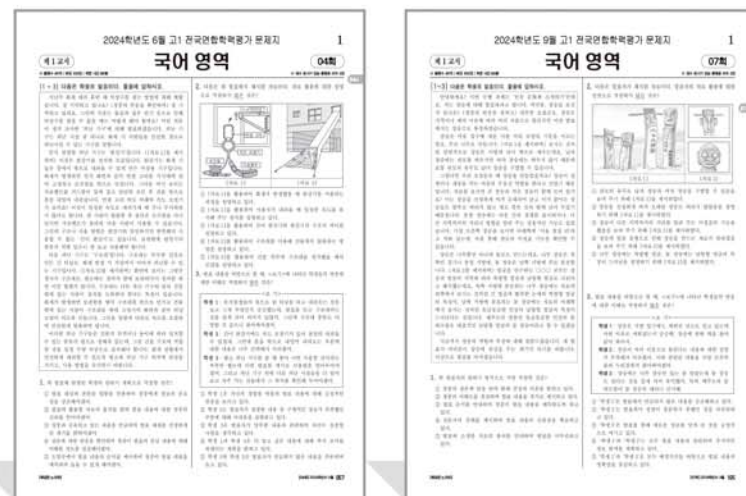
- ①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실제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②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 하고, [80분] 타이머를 작동해 실전처럼 풀어 보십시오.



02 고1 학력평가 + 학교시험 대비

연 4회 [3월·6월·9월·11월] 시행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1 학교 내신까지 대비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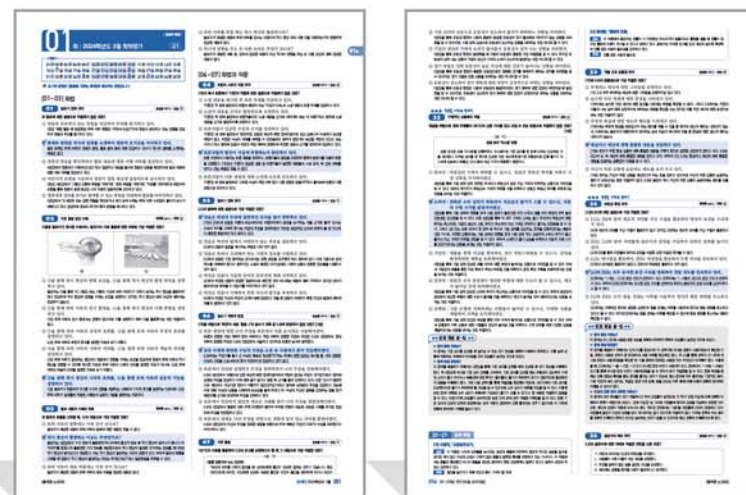
- ① 월별로 시행되는 학력평가를 대비해 12회분 문제를 풀어 보면 실제 시험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 ② 학교 시험에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하거나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많아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입체적 해설 & 문제 해결 꿀 팁

혼자서도 학습이 충분하도록 자세한 [입체적 해설]과 함께 고난도 문제는 문제 해결 꿀~팁까지 수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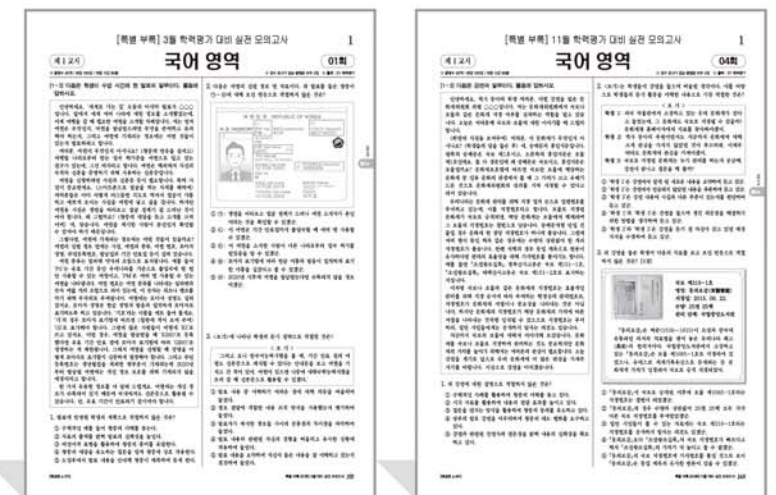
- ① 선지에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입체적으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해 답답함이 없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② 국어에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는 많이 틀린 이유와 함께 문제 해결 꿀 팁까지 명쾌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04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4회

3·6·9·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1 학교 시험을 대비해 실전 모의고사 4회분을 제공합니다.

- ① 3·6·9·11월 시행되는 고1 학력평가와 1·2학기 학교 시험을 완벽 대비할 수 있습니다.
- ② 실전 모의고사는 고1 학력평가 문항 중 우수 문항만을 재구성한 문제로 학력평가와 내신을 대비해 꼭 풀어 봐야 합니다.



05 국어 문법 총정리 & 등급 컷

수능과 내신에서 필수인 국어 핵심 문법 총정리와 문제를 푼 후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 ① 내신과 수능에서 국어영역 1등급을 위해 문법의 개념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도록 문법 총정리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 ② 문제를 푼 후 바로 자신의 실력과 모의고사에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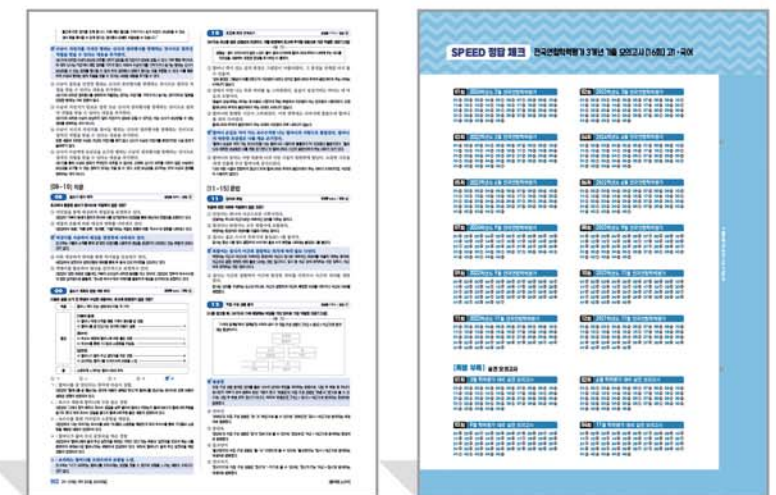
※ 문법 총정리는 오려서 휴대할 수 있으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학습하세요.



06 정답률 & SPEED 정답 체크 표

문제를 푼 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SPEED 정답 체크 표와, 문항별 정답률까지 제공합니다.

- ① 문제를 푼 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SPEED 정답 체크 표를 제공하며, 오려서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문항별로 정답률을 제공하므로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 풀이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STUDY 플래너 & 등급 컷

- ①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②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 ③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④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이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 국어영역 | 시험 개요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문항별 점수 표기	원점수 만점	시험 시간	문항 형태
45문항	2점, 3점	• 3점 문항에 점수 표시 • 점수 표시 없는 문항 모두 2점	100점	80분	5지 선다형

● 국어영역 | 등급 컷 원점수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 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24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5	77	67	55	44	34	24
02회 2023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5	89	81	70	58	47	36	25
03회 2022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76	68	60	52	44	37	30	23
04회 2024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7	79	69	58	45	33	23	18
05회 2023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7	78	68	57	46	36	27	21
06회 2022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3	73	62	49	37	26	20
07회 2024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7	78	67	55	42	31	23	18
08회 2023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6	77	67	57	45	34	26	18
09회 2022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2	73	63	53	42	32	23	18
10회 2023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0	69	56	41	29	20	17
11회 2022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0	70	59	45	33	23	17
12회 2021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79	70	59	46	35	26	20

※ 등급 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채점 결과	틀린 문제	시간 부족 문제
01회 3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2회 6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3회 9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04회 11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REAL
ORIGINAL

국어 문법 총정리

I.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1. 음운의 개념

▶ 음운의 개념과 체계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화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인 말소리 •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	
분절 음운(음소)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 음소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음운. 고저, 강약, 장단이 있음. 현대 국어에는 장단(長短)이 있음.

※ 자음과 모음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조음 기관의 방해로 많이 받으면 자음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 만들어짐.

※ 반모음 :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에 가깝지만 모음처럼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모음이라고 부름.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

Dic. 문법 핵심 개념

- ▶ 음운 :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
 - ㉠ '달-말'에서의 'ㄷ'과 'ㄹ'
- ▶ 최소 대립쌍 :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로 예를 들어, '달-말'에서의 'ㄷ'과 'ㄹ'을 음운이라 함.
 - ㉡ '달-말', '불-벌', '설-설'

2.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ㅍ	ㅌ		ㄱ
	된소리	ㅂ	ㄷ		ㄴ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ㅉ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음		ㄹ			
비음	ㅁ	ㄴ		ㅇ	

- 파열음 :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파찰음 :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이 모두 있는 소리.
- 마찰음 :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힌 통 사이로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비음 :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Dic. 문법 핵심 개념

- ▶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방법
- ▶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 예사소리(평음) • 된소리(경음) • 거센소리(격음)
- ▶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른 분류 : 울림소리(유성음) • 안울림소리(무성음)

3. 국어의 모음 체계

1. 단모음 :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일정한 모음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ㅜ	ㅡ	ㅗ
중모음	ㅐ	ㅙ	ㅓ	ㅕ
저모음	ㅐ		ㅓ	

2. 이중 모음 :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반모음 'ㅣ' 또는 'ㅜ'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Dic. 문법 핵심 개념

- ▶ 혀의 앞뒤 위치
 - 전설 모음 : 혀의 정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
 - 후설 모음 :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
- ▶ 혀의 높이
 - 고모음(폐모음) :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
 - 중모음 :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
 - 저모음(개모음) :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 ▶ 입술의 모양
 - 원순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 평순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 ▶ 반모음 'ㅣ' 또는 'ㅜ' :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함.

I. 음운 (2) 음운의 변동

1.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지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되는 현상
	㉠ 낮, 낫, 낫, 부엌[부억], 앞[앞], 웃[웃], 뱀[뱀]
자음 동화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심만[심만], 닫는대[닫는다], 잡는대[잡는다], 받는[받는다]
모음 동화	유음화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 달님[달림], 신라[실라], 칼날[칼날], 권력[권력]
구개음화	▶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 단어 또는 어절에 있어서, 'ㅍ, ㅌ, ㅊ, ㅊ'의 후설 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나 'ㅣ' '계(系)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 'ㅐ, ㅙ, ㅓ, ㅕ'로 변하는 현상. ㉠ 아기[애기], 어미[애미], 고기[괴기]
	▶ 끝소리가 'ㄷ, 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ㅉ'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ㅈ'이 되는 현상. ㉠ 굳이[구지], 같이[가치], 말하디[다치다], 붙이다[부치다]
경음화 (된소리되기)	▶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 국밥[국뽕], 달고[달괴], 출고[출괴]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경음화 ㉠ 신고[산괴], 감다[감괴]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경음화 ㉠ 발달[발뽕], 질서[질썰], 물질[물뽕]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 할 것을 → [할꺼쑤]

Dic. 문법 핵심 개념

- ▶ 음운 변동 :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음

2. 탈락 :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 음절 말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값[값], 뉘[뉘], 뉘[뉘], 앞다[막따], 여덟[여덟], 할다[할따]
자음 탈락	'ㄹ'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멀다 : 머니, 머오 / 놀다 : 논, 놀니다, 노오 동글다 : 동그니, 동근, 동그오
모음 탈락	'ㅎ'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그릴다 : 그러니, 그릴, 그러면, 그러오 날은[나은], 많이[마니], 싫어[시러]
모음 탈락	'ㅡ' 탈락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꼬다 : 께, 께다 / 쓰다 : 췌, 췌다
동음 탈락	▶ 용언이 활용할 때 연결된 두 동음 중 뒤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 가-+-아 : 가 / 켜-+-었-+-다 : 켜다

국어 문법 총정리	
① 첨가 :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ㄴ’ 첨가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 ㄴ’으로 시작될 때,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아+롭→잇롭[인롭]] [코+날→콧날[큰날]]
	▶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 첨가되는 경우 [집안+일→집안일[지반닐]] [물+악→물악[물낙-물낙]] [가외+일→가외일[가원닐]] [나무+알→나뭇알[나문닐]]
반모음 첨가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님. [피어 → [피어/피어], 되어 → [되어/되어]]

Dic. 문법 핵심 개념
▶ 사잇소리 현상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되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발+길 → 발길[발깁]] [등+불 → 등불[등불]]

①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현상

자음 축약	▶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인접한 두 자음이 하나의 음소로 줄어들어 소리 나는 현상. ‘ㄴ, ㄷ, ㄷ, ㄱ, ㄱ’과 ‘ㅇ’이 서로 만나면 ‘ㄴ, ㄷ, ㄱ, ㄱ’(거센소리)이 되는 것 [놀다[노타], 쌓지[싸치], 울지[울치], 좋고-[-[조코]]
--------------	---

Dic. 문법 핵심 개념
▶ 모음 축약 :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 [ㅏ + ㅣ →ㅓ : 오+아서→와서] [ㅓ + ㅣ →ㅕ : 두+었다→뒀다] [ㅣ + ㅣ →ㅚ : 가자+아→가져]

Ⅱ. 단어와 품사 (1) 단어와 품사의 특성

▶ **품사의 개념** :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

▶ **품사의 분류**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단어	불변어	체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가변어	독립언	부사
		관계언	감탄사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Dic. 문법 핵심 개념
▶ 품사 분류 기준
① 형태 기준에 따른 분류
• 불변어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체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손, 우리, 매우]
• 가변어 : 형태가 변하는 단어(용언, 서술격 조사)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는다 …),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② 기능 기준에 따른 분류
• 체인 :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임.(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 :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임.(동사, 형용사)
• 수식언 :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수식함.(관형사, 부사)
• 관계언 :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줌.(조사)
• 독립언 :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감탄사)
③ 의미 기준에 따른 분류
• 명사 :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 대명사 :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 수사 : 대상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냄.
• 동사 :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 형용사 :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관형사 : 주로 체언을 수식함.
• 부사 : 주로 용언, 관형사, 부사 등을 수식함.
• 조사 :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 감탄사 :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등을 나타냄.

① **체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임.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함.

① **명사** :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 범위	보통 명사	▶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땅, 하늘, 사람, 책]
	고유 명사	▶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인명, 지역명, 상호명 등 [안중근, 부산, 한강]
자립성	자립 명사	▶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사과, 구름]
	의존 명사	▶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명사 [것, 따름, 마리, 뽀, 뽀]

②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지시 대명사	▶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 1인칭 :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 2인칭 :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 3인칭 :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그이, 저이]
미지칭	▶ 모르는 사물, 사람,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무엇, 누구, 어디(주로 의문문에서 쓰임)]
부정칭	▶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
재귀칭	▶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저, 자기, 당신]

③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	▶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 [고유어 계열 [하나, 둘, 셋] [한자어 계열 [일, 이, 삼]
서수사	▶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고유어 계열 : ‘-째’를 붙임. [첫째, 둘째, 셋째] [한자어 계열 : ‘제’를 붙임. [제일, 제이, 제삼]

②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① **동사**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자동사	▶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타동사	▶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잡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주동사	▶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먹다, 앉다]
사동사	▶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먹이다, 알히다]

능동사	▶ 주어가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잡다, 밀다]
피동사	▶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잡히다, 밀리다]

② **형용사**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상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검다, 달다, 예쁘다, 낮다]
지시 형용사	▶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언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 명정형 어미 ‘-아라/-아라나 청유형 어미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국어 문법 총정리

③ **용언의 활용** : 용언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어간	▶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들 [선어말 어미 :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시제, 높임 등을 나타냄.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음.] [어말 어미 :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반드시 있어야 함.]

Dic. 문법 핵심 개념
▶ 어말 어미의 기능에 따른 분류
• 종결 어미 : 문장의 끝을 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다. 구나, 니?]
• 연결 어미 :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 [바람이 불면, 어서] 우리는 연을 날렸다.
• 전성 어미 :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③ **수식언**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해당함.

①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단어

성상 관형사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 [새 옷, 흰 책, 다른 물건]
지시 관형사	▶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 [이 의사, 그 사람, 저 자전거]
수 관형사	▶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 [두 사람, 연필 다섯 자루, 넷째 딸, 제삼(第三) 회 대회]

Dic. 문법 핵심 개념
▶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의 품사 해당 단어의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 그렇지 않고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수 관형사)

② **부사** : 용언이 나 관형사, 부사, 문장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 **부사의 종류**

부사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양태 부사	접속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성상 부사	▶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꾸미는 부사로, 의성 부사(소리를 흉내 내는 부사)와 의태 부사(모양을 흉내 내는 부사)가 여기에 속함. [매우, 가장, 간질히, 깨끗이, 아식아식, 사뿐사뿐]
지시 부사	▶ 최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의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이리, 그리, 저리]
부정 부사	▶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 [못, 아니/안]

•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양태 부사	▶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 [다행히, 과연, 설마]
접속 부사	▶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Dic. 문법 핵심 개념
▶ 부사의 특성
• 형태 변화를 하지 않음.(불변어)
• 격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음. [자꾸만, 아직도]
•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임.
•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④ **관계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

▶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하는 단어

격 조사	▶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주격 조사(이/가, 게서), 목적격 조사(을/를), 관형격 조사(의), 보격 조사(이/가), 부사격 조사에, 예게, 예서), 서술격 조사(이다), 호격 조사(아, 야)]
접속 조사	▶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과, 하고, (이)랑]

보조사	▶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은/는(대조), 만, 뿐(한정, 단독, 유일), 도(역시), 요(상대 높임), 부터(시작, 먼저), 까지(도급, 미침), 조차(역시, 최종), 밖에(한계), 마저(추중, 끝)]
-----	---

Dic. 문법 핵심 개념
▶ 조사의 특성
•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함.
•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함.
• 조사 결합의 제약 : 대부분의 명사는 거의 모든 조사와 결합될 수 있으나, 일부 의존 명사와 지립 명사는 격 조사와 결합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있음.

⑤ **독립언**

문장 속의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갖는 단어.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감탄사	▶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말 [앗, 와, 예보, 허허, 이런, 저런, 아이고, 흥, 네]
-----	--

Ⅱ. 단어와 품사 (2) 단어의 짜임

① **형태소**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의미 단위

▶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체인, 수식언, 독립언)
	의존 형태소	▶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체인, 수식언, 독립언, 용언)
	형식 형태소	▶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

②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단,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함.)

■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	▶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꽃사과’의 ‘사과’, ‘맨입’의 ‘입’, ‘형남’의 ‘형’]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어근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함. [‘꽃사과’의 ‘꽃-’, ‘맨입’의 ‘맨-’, ‘형남’의 ‘-남’]

Dic. 문법 핵심 개념
▶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
• 국어의 어미와 조사 중에서 조사만을 단어로 포함하게 된 것은, 자립성의 기준에서 보아 어미 앞에 오는 어간은 자립성이 없지만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은 자립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이처럼 체언이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라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과, 또 조사는 어미에 비해 쉽게 앞말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임.
•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처리되므로 다른 의존 형태소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붙임표(~)를 붙이지 않음.

③ **단어의 형성**

단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파생어	비통사적 합성어

① **단일어** :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땅, 하늘, 밥]

② **복합어** :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③ **합성어**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통사적 합성어	▶ 단어의 형성 방식이 국어의 문장이나 배열 구조(명사+명사, 관형어+명사, 주어+서술어, 부사어+용언 등)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쌀밥(쌀+밥 : 명사+명사) / 새해(새+해 : 관형어+명사) [분발대(분+발다 : 목적어+서술어) [뛰어가다(뛰+→-어+가다 :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 단어의 형성 방식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이나 결합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늦잠(늦+잠 : 용언의 어간+명사) [놀무르다(놀+→무르다 : 용언의 어간+용언)]

국어 영역

제 1 교시

● 문항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험 활동 때 방문했던 트릭 아트 체험관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특히 외나무다리 트릭 아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그림 위에 섰을 때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트릭 아트에 대해 관심이 생겨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릭 아트란 주로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재미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대답을 듣고) 네, 토끼라는 대답도,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이 그림에는 두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등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길쭉한 부분에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군요. (㉡ 질문을 듣고) 네,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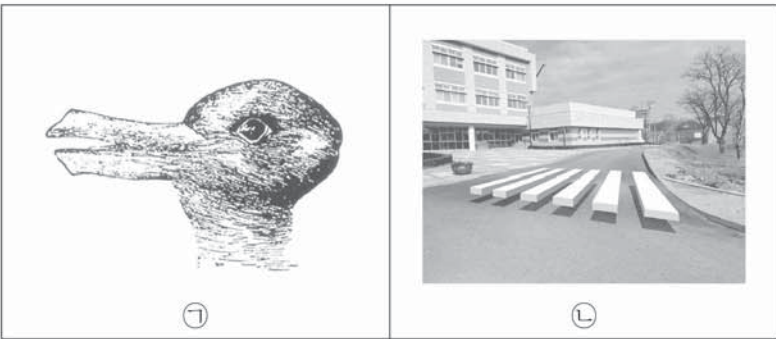
자, 이해되었나요? (대답을 듣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릭 아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가리키며) 이 횡단보도는 표지선 아래에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것이지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트릭 아트는 건물 외벽, 광고판, 관광지의 포토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트릭 아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 드리는 트릭 아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설명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이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트릭 아트의 긍정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시각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트릭 아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④ 트릭 아트를 만들 때는 착시 현상만 활용하나요?
- ⑤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국어 문법 총정리

㉠ 파생어 :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파생어	▶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 군침(군+침) / 새파랗다(새+파랗다) / 치솟다(치+솟다)
접미 파생어	▶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 구경꾼(구경+꾼) / 가르침(가르치+-ㅁ : 동사→명사) 웃기다(웃+-기+다 : 주동사→사동사)

Dic.	문법 핵심 개념
▶ 다의어(多義語)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소리는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단어

Ⅱ. 단어와 품사 (3)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1 단어 의미의 유형

-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 중심적 의미 : 다의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 ▶ 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가운데 첫 번째 의미
 - 주변적 의미 : 다의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 ▶ 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가운데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미
- ②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 사전적 의미 :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곧, 사전에 등재된 의미
 - ㉣ '산'의 사전적 의미: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
 - 함축적 의미 :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 ㉤ '산'의 함축적 의미 :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진취적인 기상, 설의 고난과 역경 등
- ③ 그 외 단어의 의미
 - 사회적 의미 :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로, 여러 단어를 가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사회적 환경: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
 - 정서적 의미 : 화자(필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에 대한 공손함 등과 관련되어,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
 - 주제적 의미 :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화자(필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 반사적 의미 :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2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유의 관계	▶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됨. 유의 관계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 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가끔-종종-왕왕 / 걱정-근심 / 가난하다-빈곤(貧困)하다-궁핍(窮乏)하다
반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의어가 됨. ㉢ 소년-소년 / 위-아래
상하 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포함하는 단어가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가 하위어임. ㉣ 동물-사자 → '동물'이 상위어, '사자'가 하위어 작가-시인 → '작가'가 상위어, '시인'이 하위어

Ⅲ. 문장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성분

1 문장과 문법 단위

어절(語節) → 구(句) → 절(節) → 문장(文章)

▶ 문장 성분 :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

- 주성분 :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 부속 성분 :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관형어, 부사어)
- 독립 성분 : 다른 문장 성분과는 문법적 관계가 없는 문장 성분(독립어)

2 주성분

주어	▶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무엇이다.'로 나타낼 때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가 붙어서 나타남. ㉡ 동생이 도서관에 간다.(주격 조사 '이'가 붙음) •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동생만 집에 왔다.(보조사 '만'이 붙음)
서술어	▶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어떠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무엇이 무엇을 어떠한다.'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성분. • 목적격 조사 '을/를'은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음. ㉡ 철수가 (밥을 / 밥 / 밥만) 먹는다.
보어	▶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와 아닌 것. • 보격 조사 '이/가'는 생략될 수도 있고 '이/가'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그는 대학생이 아니다.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 필수적으로 요구	㉡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	㉢ 나는 책을 읽는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	㉣ 나는 과일을 영희에게 주었다.

3 부속 성분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관형어의 형태 ㉠ 관형사 ㉡ 그녀가 새 옷을 입었다. ㉢ 체언+관형격 조사 '의' ㉣ 그녀가 동생의 옷을 입었다.(체언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될 수 있음.) ㉤ 용언의 관형사형 ㉥ 그녀는 예쁜 꽃을 샀다.
부사어	▶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용언 외에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함. ■ 부사어의 종류 • 성분 부사어(문장 성분을 수식함 : 용언 수식, 관형어 수식, 부사어 수식, 체언 수식) • 문장 부사어(문장 수식) / 접속 부사어(문장 접속, 단어 접속)

4 독립 성분

독립어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 독립어의 형태 • 감탄사 ㉡ 아, 달이 밝다. • 체언+호격 조사 ㉢ 철수야, 지금 어디 가니?
-----	---

Ⅲ. 문장과 문법 요소 (2) 문장의 짜임

1 홀문장과 겹문장

- ①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 눈이 온다.
- ②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짐.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음.

안은문장	▶ 전체 문장이 홀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 • 종류 : 명사절/관형절/부사절/서술절/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 홀문장과 홀문장이 이어진 겹문장 • 종류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 ① 명사절을 안은문장 :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붙어서 만들어짐.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 ② 관형절을 안은문장 :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짐.
㉢ 이것은 철수가 입을 옷이다. / 이것은 철수가 입던 옷이다.

Dic.	문법 핵심 개념
▶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관형절이 표현하는 시제가 다름.	-(으)ㄴ : 과거 또는 현재 -는 : 현재 -(으)ㄹ : 미래 -던 : 과거

- ③ 부사절을 안은문장 :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이', '-게',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짐.(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함.)
㉡ 철수는 내게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 ④ 서술절을 안은문장 :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
 - 문장의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함.
 -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임.

[4~7] (가)는 ‘활동 1’에 따라 실시한 독서 토론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하연’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 활동 1: 1970년대 소설인 「자전거 도둑」을 읽고, 아래의 주제로 독서 토론을 해 보자.

[주제]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

○ 활동 2: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가)

지현: 먼저 소설의 상황에 대해 말해 볼게.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수남은 배달을 갔어.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한 신사가 수남에게 너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고 말했지. 신사는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찾아 보상금을 요구해. 신사는 보상할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 두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는데 수남은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 과연 수남의 행동은 정당할까?

민준: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봐.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 흠집이 난 거잖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 수남이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어.

하연: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수남이 자전거를 잘 묶어야 해. 자전거가 쓰러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지현: 둘의 입장이 다르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민준: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구절이 나오니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질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소설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하연: 바람이 유난해서 수남이 배달할 물건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이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지. 그런데도 자전거는 잘 안 묶어 두었잖아.

지현: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

하연: 그래, 맞아.

지현: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

하연: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로도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어. 합의가 이뤄졌는데 수남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건 정당하지 않아.

민준: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야. 신사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수남이 동의하기 전에 가 버렸잖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갔는데 합의라고 볼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건 문제가 없어.

하연: 일방적 제안은 아닌 거 같아. 신사는 수남이 울어서 보상금을 반으로 줄여 주잖아. 그리고 수남이 잘못했다는 대답도 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줬

[A]

고, 수남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합의가 이뤄진 거야. 민준: 신사가 수남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유한 어른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배달원 소년에게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돈을 요구했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

지현: 같은 소설을 읽고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독서 토론의 주제로 ‘활동 2’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나)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난 흠집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수남은 배달 물건은 꼼꼼하게 묶었지만, 자전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실제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예보를 듣고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주택 소유자가 그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신사와 수남은 보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지만, 신사는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 또한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1970년대 배달원 소년의 입장에서 5천 원이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남은 신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남은 도둑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된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전거를 자신이 훔친 수남인 것이다.

4. (가)의 독서 토론에서 ‘지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 내용을 제시한 후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⑤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5.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준은 하연의 주장에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민준은 하연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 ③ 민준은 하연이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 ④ 하연은 민준이 사용한 단어의 중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⑤ 하연은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고 있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초고]

우리 할머니 댁은 남쪽 바다의 작은 섬에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연휴나 방학이 되면 매년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해엄을 치거나 바위틈에서 고등과 게를 잡기도 했고 산에서 신나게 짭 포대로 눈썰매를 타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다.

할머니 댁은 섬 서쪽 바닷가의 큰 등대 근처에 있었다. 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동생과 나는 그 등대를 ‘거북이 등대’라고 불렀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 할머니 댁에 가까워진 것이라서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마중 나오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었다.

할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옥수수를 기르셨다. 늦봄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와 같이 옥수수 씨를 뿌렸고, 여름 방학에는 점점 자라는 옥수수에 물 주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 꾸중을 듣고 시무룩해 있는 나에게 할머니는, “똥든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 이란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라며 토닥여 주셨다. 나는 익어 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늦여름에는 연두색 옥수수수염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 옥수수가 여물었다. 가을에는 기다림의 결실인 쫄면 옥수수를 수확하며 나는 한 뼘 더 성장했다.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 서울에서 갈치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갈치국을 끓여 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 칼칼하게 졸인 갈치조림과 달리 갈치, 늙은 호박, 배추를 넣어서 맵지 않도록 맑게 끓인 요리이다. 내가 갈치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사 오셔서 갈치국을 해 주셨다. 할머니의 갈치국에서는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다.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맴돈다.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진다.

지금은 어렸을 때만큼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지 못해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8.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 세운 ‘활동 2’의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토론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토론에서 다룬 순서대로 서술해야겠어.
- ② 토론 주제와 관련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절에서 찾아 언급해야겠어.
- ③ 토론에서 언급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의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 ④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를 찾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⑤ 토론에서 내세운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밝혀야겠어.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법률 전문가의 뉴스 인터뷰]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물건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수남이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수남의 자전거가 담보로 잡힌 것은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수남이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둔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신사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수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서의 어릴 적 기억
중간	[거북이 등대] ○ 할머니 댁에 도착할 때쯤 거북이 등대를 본 경험 ○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 …… ㄱ
	[옥수수] ○ 옥수수 때문에 할머니께 꾸중 들은 경험 …… ㄴ ○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음. …… ㄷ
	[갈치국] ○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 …… ㄹ ○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낌. … ㅁ
끝	소중하게 느껴지는 할머니와의 추억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글의 마지막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을 추가하면 더 좋겠어.

- ① 할머니 댁이 있는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그 풍경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② 섬에서 자란 나는 푸른 바다를 늘 그리워한다. 윤슬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③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진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려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다.
④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온기였다.
⑤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 소중한 시간을 내게 선물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뉘는데,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햇－, 댓－, 들－’과 같은 말은 접두사이고, ‘－지기, －음, －게’와 같은 말은 접미사이다.

단어는 그 짜임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가령 ‘밤’이나 ‘문’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며, 어근 ‘밤’, ‘문’이 각각 또 다른 어근과 결합한 ‘밤나무’, ‘자동문’은 합성어이다. 또한 어근 ‘밤’과 접두사 ‘햇－’이 결합한 ‘햇밤’, 어근 ‘문’과 접미사 ‘－지기’가 결합한 ‘문지기’는 파생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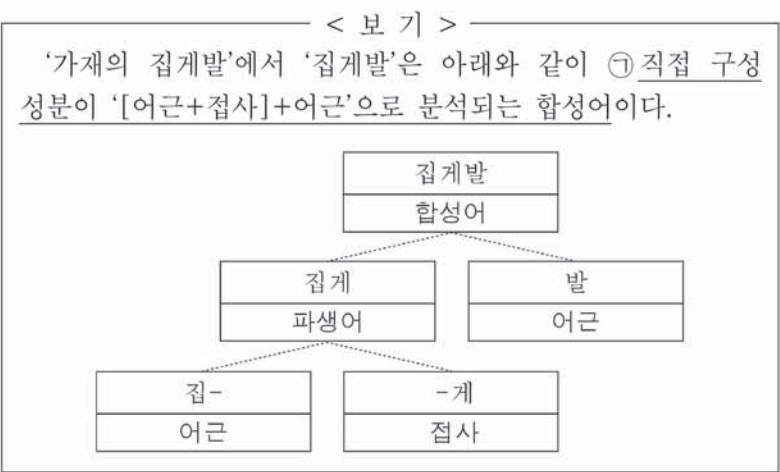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짜임의 단어를 이해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는 방법으로, 나뉜 두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일 경우 그 단어를 파생어로 보고,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닐 경우 합성어로 본다.

[A] 가령 단어 ‘코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보기에 합성어로 분류한다. 이는 ‘코’가 어근이며, ‘웃음’이 어근 ‘웃－’과 접미사 ‘－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임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코웃음’의 직접 구성 성분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웃－’은 존재하지 않고 ‘코’와 ‘웃음’만 존재하며, 의미상으로도 ‘코+웃음’의 분석이 자연스럽게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의 짜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②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포함된다.
③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에 붙임표(－)를 붙인다.
④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짜임을 가진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볍음밥 ② 덧버선 ③ 문단속
④ 들고양이 ⑤ 창고지기

제1교시

● 문항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국어 영역

01회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 출처 : 고1 학력평가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세계로 가는 길’ 모둠의 마지막 발표자 ○○○입니다. 앞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었는데, 이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여권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저는 먼저 여권은 무엇인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여행할 나라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증을 여권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비자라고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사진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이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는 자세를 취하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찍어서 얼굴이 가름하고 예쁘게 보이는 사진을 여권에 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권용 사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잘 드러난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여권을 제시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의 신원 정보 면에는 사진, 여권의 종류, 여권 번호,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과 기간 만료일 등이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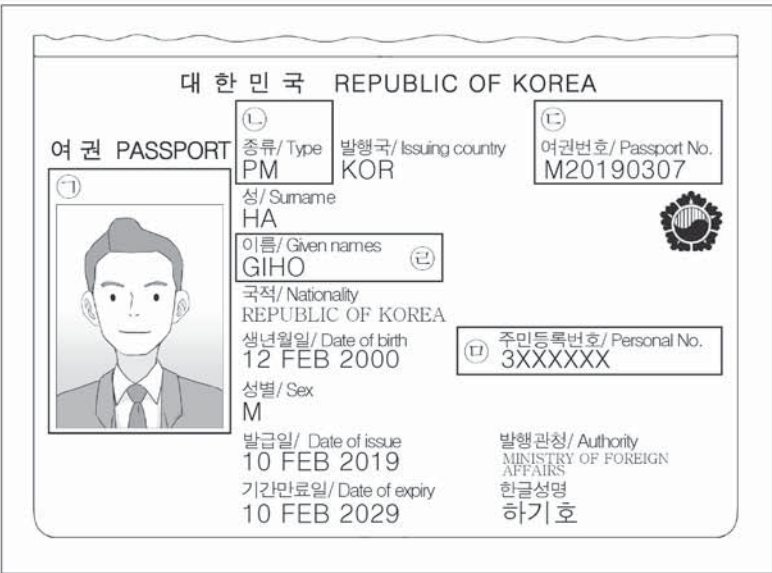
여권 종류는 알파벳 약자의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PS’는 유효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출입국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 ‘PM’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나타냅니다. 여권 번호는 여권 종류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 여덟 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여권에는 로마자 성명도 실려 있어요. 로마자 성명은 한글 성명의 발음과 일치하게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호’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 볼게요. ‘기’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칠판에 적어 보여 주며) ‘GI’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권에 ‘KI’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여권을 발급받을 때 ‘KIHO’로 등록했다면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IHO’로 정정하는 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명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부분이 기재되는데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더 알려 드릴게요. 여권에는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②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인다.
③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④ 청중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 작용한다.
⑤ 도입부에서 발표 내용을 안내해 청중이 예측하며 듣게 한다.

2. 다음은 여권의 신원 정보 면 자료이다.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 여권 소지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 이 여권은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국할 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겠군.
③ ㉢: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겠군.
④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이름과 발음이 일치하게 표기한 이름을 실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 2020년 이후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수록되지 않을 정보이겠군.

3.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듣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그리고 보니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때, 기간 만료 전의 여권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여권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 여권이 있으면 나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러 갈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 ① 발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며 들었다.
② 정보 전달에 적합한 내용 조직 방식을 사용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③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들었다.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며 들었다.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었다.

[4~7] (가)는 라디오 대답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 연구원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도 고래상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현재 전 세계 바다에 1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매년 약 800만 톤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800만 톤이 워낙 큰 수치다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연구원: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는 육지나 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으로 바람이나 물살에 끌려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마다 10만 9400톤 가량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진행자: 육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끌려 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이 꽤 많았네요.
연구원: 집중호우와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외에도 분리수거 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도로변 미세 플라스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심각하군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규모를 보니 해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근 해역의 굴, 담치, 게 등의 어패류를 채집해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139개체 중 97%에서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원: 네, 현재 바다에는 여러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어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론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 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있습니다. 매년 ‘런던 협약 및 런던 의정서 합동 과학 그룹 회의’를 통해 해양 투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 해양 쓰레기 제거 기술 연구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이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원: 해양 오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라도 덜 쓰기를 당부 드리고, 사용 후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거하신 후 세척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이제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무려 1억 6천만 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려왔던 것일까?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패스트푸드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빨대를 버리고 있었으며 매일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만 해도 적지 않았다.
매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대략 800만 톤이며,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수는 플랑크톤 수의 180배이다. 이 가운데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파도에 부서져 생긴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보낸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 마다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또한 방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바다 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어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해양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다회용 식기를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하고 개인 컵을 휴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소재가 부착되어 있거나 잔여물이 남은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요구르트, 컵 커피 같은 플라스틱 포장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알루미늄 뚜껑 부분을 제거한 뒤 세척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

4. <보기>는 진행자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언급한 후, 대담의 중심 화제를 소개함으로써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의 규모도 확인하여 청취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도록 해야지. 그 다음, ㉢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약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겠어. 대담을 끝내기 전에, ㉣ 청취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후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연구원’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A]: ‘진행자’는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③ [A]: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④ [B]: ‘연구원’은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⑤ [B]: ‘진행자’는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독자에게 알려야겠어. …………… ①
○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해야겠어. …………… ②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생활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해야겠어. …………… ③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명료하게 파악하도록 해야겠어. …………… ④
○ 다른 소재의 재활용률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⑤

7.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독자에게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미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 ①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데 5초, 쓰이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용한 신소재로 재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
②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닷물 1m³에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모이면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다.
③ 태평양의 동서쪽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인 쓰레기 섬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 주 면적의 2배 크기인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데, 쓰레기 섬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무렵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유엔환경계획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치약, 화장품 생산에 쓰였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데기 같은 유기 물질로 원료를 바꾸는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⑤ 미국, 멕시코, 중국 등 9개국 11개 브랜드 생수 259병을 조사한 결과 93%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21개국에서 판매되는 소금을 분석한 결과 90%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고1 국어 16회 | 해설편

Contents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회	2024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01쪽
02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0쪽
03회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9쪽
II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회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29쪽
05회	2023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37쪽
06회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6쪽
III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7회	2024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55쪽
08회	2023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65쪽
09회	2022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75쪽
IV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84쪽
11회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93쪽
12회	2021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3쪽
V	[특별 부록] 실전 모의고사	
01회	2025학년도 3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113쪽
02회	2025학년도 6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122쪽
03회	2025학년도 9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132쪽
04회	2025학년도 11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141쪽



※ 수록된 정답들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도를 파악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답 ▶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⑤
16 ① 17 ③ 18 ② 19 ④ 20 ④	21 ③ 22 ① 23 ④ 24 ② 25 ①	26 ⑤ 27 ③ 28 ⑤ 29 ④ 30 ④
31 ① 32 ⑤ 33 ② 34 ② 35 ⑤	36 ③ 37 ⑤ 38 ③ 39 ④ 40 ⑤	41 ③ 42 ③ 43 ④ 44 ⑤ 45 ③

★ 표기된 문항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01~03] 화법

01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률 92% | 정답 ②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1문단 '체험 활동 때 방문했던 트릭 아트 체험관 기억나시나요?'에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 화제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발표 화제인 트릭 아트의 개념과 원리, 활용 분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없다.
- ③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4문단에서 청중에게 '이해되었나요?'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므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설명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문단, 4문단에서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자료를 가리키며'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이 설명 대상인 시각 자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5문단에서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 드리는 트릭 아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며 정보의 추가적 탐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2

자료 활용 방안 이해

정답률 94% | 정답 ⑤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는 ㉠을 통해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라고 언급하여 착시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②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이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은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을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을 통해 트릭 아트의 긍정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은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④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은 트릭 아트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청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언급하며 청중이 트릭 아트의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한 자료로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한 자료가 아니며, ㉠은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시각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은 발표자가 청중에게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로서 시각적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은 트릭 아트가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로서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03

발표 내용의 이해와 추론

정답률 94% | 정답 ②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트릭 아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표자는 3문단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대담한다. 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청중이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을 때 추측할 수 있다.

- ③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문제편 p.009]

- ④ 트릭 아트를 만들 때는 착시 현상만 활용하나요?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시 현상 외의 다른 것을 이용하느냐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다.
- ⑤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 중,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다.

[04~07] 화법과 작문

04

토론의 사회자 역할 파악

정답률 90% | 정답 ④

(가)의 독서 토론에서 '지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 내용을 제시한 후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현'은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의 배경이 되는 '자전거 도둑'의 소설 내용과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현'은 두 번째 발언에서 토론자들에게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라고 말하며 소설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
'지현'은 세 번째 발언에서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라고 말하며 민준과 하연이 책임 여부에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정리하여 언급하고 있다.

- ✓ 토론자들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조정하며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어 토론을 진행한다. (가)에서 '지현'이 언급한 내용 중 토론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의 사실 관계, 즉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현'은 네 번째 발언에서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라고 물어보며 토론의 다른 쟁점으로 유도하고 있다.

05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률 75% | 정답 ①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민준은 하연의 주장에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가)의 [A]에서 민준은 어른이 비상식적으로 어린이에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줘'라는 하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 ② 민준은 하연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A]에서 민준이 질문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민준은 하연이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A]에서 민준은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돈을 요구했어.'라고 말하며 당시 시대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④ 하연은 민준이 사용한 단어의 중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A]에서 하연은 민준이 언급한 '일반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단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 ⑤ 하연은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고 있다.
[A]에서 하연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06

글쓰기 계획의 반영

정답률 82% | 정답 ②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 세운 '활동 2'의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토론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토론에서 다른 순서대로 서술해야겠어.
토론의 쟁점은 책임 여부와 합의 여부이다. 책임 여부와 관련한 하연의 주장은 (나)의 1문단에서, 합의 여부와 관련한 주장은 (나)의 2문단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토론의 순서와 일치한다.

- ✓ 토론 주제와 관련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절에서 찾아 언급해야겠어.
(나)에서는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에 대한 입장만 제시할 뿐, 이와 관련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에서 찾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토론에서 언급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의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나)의 1문단에서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라고 말하며 상대방 주장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한 후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신사가 일반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와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를 근거로 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를 찾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나)의 1문단에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새로운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토론에서 내세운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밝혀야겠어.
(나)의 3문단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목인 '자전거 도둑'이 수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07

자료 활용

정답률 88% | 정답 ①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법률 전문가의 뉴스 인터뷰]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물건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보기〉에 의하면 수남이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자전거가 담보로 잡힐 수 있다. 이에 형법 제323조 에 따라 신사는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남이 이를 가져가거나 숨기는 행위는 신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활용 하여 수남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수남이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보기〉에 의하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숨기는 경우이므로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이와 관련이 없다.

수남의 자전거가 담보로 잡힌 것은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보기〉에 의하면 수남이 보상하지 않아 자전거가 담보로 잡힐 수 있지만, 이는 신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수남이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둔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토론 내용에 의하면 수남은 자신의 자전거를 묶지 않고 신사가 수남의 자전거를 묶었으므로 사실 관계가 옳바르지 않다.

신사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수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보기〉를 통해 수남의 권리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수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08~10] 작문

08 글쓰기 방식 파악 정답률 55% | 정답 3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2문단의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에서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문단에서 '늦봄', '여름 방학', '늦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옥수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초고에는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4문단에서 갈치국과 갈치조림의 대비를 통해 두 음식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문단의 '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3문단의 '연두색 옥수수수염 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 '늦노란 옥수수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률 94% | 정답 5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할머니 덕이 있는 섬에서의 어릴 적 기억
중간	[거북이 등대] ○ 할머니 덕에 도착할 때쯤 거북이 등대를 본 경험 ○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 [옥수수] ○ 옥수수 때문에 할머니께 꾸중 들은 경험 ○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음, [갈치국] ○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 ○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낌,
끝	소중하게 느껴지는 할머니와의 추억

1 거 2 L 3 C 4 R 5 R

거 :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
2문단의 '할머니를 곧 뵈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에 할머니를 만나는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설렘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L : 옥수수 때문에 할머니께 꾸중 들은 경험
3문단의 '그러다 찡지 못하고 옥수수 겹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에서 옥수수 겹질을 열다가 할머니께 꾸중 들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C :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음.
3문단에서 '나는 익어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에서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R :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
4문단에서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라는 부분과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라는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R :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낌.
초고에는 '나'가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장면을 찾을 수 없으며 보람을 느끼는 내용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10 조건에 따라 고쳐쓰기 정답률 71% | 정답 4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글의 마지막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을 추가하면 더 좋겠어.

① 할머니 덕이 있는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그 풍경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섬에서 자란 나는 푸른 바다를 늘 그리워한다. 윤슬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윤슬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부분에서 직유법이 아닌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진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려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와 직유법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온기였다.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에 직유법이 활용되었고,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온기였다.'에 할머니와의 시간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⑤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 소중한 시간을 내게 선물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에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15] 문법

11 단어의 짜임 정답률 86% | 정답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 ②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포함된다.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③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에 불임표(－)를 붙인다.
접사는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지 못함을 나타내는 불임표(－)를 붙인다.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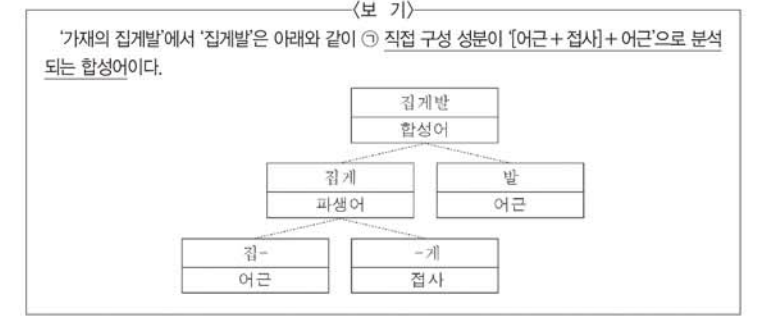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어근과의 결합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뉘는 것은 접사이다. 접사 중 어근 앞에 위치하는 것은 접두사, 어근 뒤에 위치하는 것은 접미사이다.

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12 직접 구성 성분 분석 정답률 76% | 정답 1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짜임을 가진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복음법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어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뉘 두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인(지) 어부가 단어 분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복음법'의 직접 구성 성분은 '복음'과 '법'으로 볼 수 있으며, 나뉘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니다. 따라서 '복음법'은 '〔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로 분류한다.

② 덧버선

'덧버선'의 직접 구성 성분은 '덧-'과 '버선'으로 볼 수 있으며, '덧버선'은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③ 문단속

'문단속'의 직접 구성 성분은 '문'과 '단속'으로 볼 수 있으며, '문단속'은 '어근+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로 분류한다.

④ 들고양이

'들고양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들-'과 '고양이'로 볼 수 있으며, '들고양이'는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⑤ 창고지기

'창고지기'의 직접 구성 성분은 '창고'와 '-지기'로 볼 수 있으며, '창고지기'는 '어근+접사'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13 음운 변동 정답률 72% | 정답 2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조음 방법만 바뀌거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뀝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학습 활동’을 수행해 봅시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잇몸소리	천인장소리	여린입장소리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ㅈ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영향의 방향

음운이 바뀌는 양상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영향의 방향

음운이 바뀌는 양상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영향의 방향

음운이 바뀌는 양상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앞 음운의 영향

뒤 음운의 영향

해 음운의 영향

학습 활동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운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를 ㄱ ~ ㄹ에서 골라 보자.

ㄱ. 난로[날로]

ㄷ. 실내[실래]

ㄴ. 만이[마지]

ㄹ. 툼날[툼날]

① 거, L ② 거, R ③ L, C ④ L, R ⑤ C, R

거. 난로[날로]

'난로[날로]'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L. 만이[마지]

'만이[마지]'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ㅈ'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L은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지만,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 실내[실래]

'실내[실래]'는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C은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R. 툼날[툼날]

'툼날[툼날]'은 뒤의 음운 '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ㅂ'이 'ㅁ'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14 단어의 의미와 쓰임 정답률 85% | 정답 1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작다 / 적다' 중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온라인 사전에서 '작다'를 검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말해 보자.

거. 민수는 전서에 비해 말수가 (작다 / 적다).
L. 키가 커서 작년에 구매한 옷이 (작다 / 적다).
C. 오늘 일은 지난번에 비해 규모가 (작다 / 적다).
R. 그는 큰일을 하기에는 그릇이 아직 (작다 / 적다).
R. 백일장 대회의 신청 인원이 여전히 (작다 / 적다).

작다¹

「1」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2」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3」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4」 사람됨이나 생각 따위가 좁고 보잘것없다.

작다²→ 적다

적다²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 →: 'a ~ b'는 a를 b로 바꿔 써야 함을 나타냄.

거 : '작다'의 「1」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작다'와 '적다'처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거은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 '적다'와 '적다'를 고려할 때 '작다'가 적절하다. '적다'에 사용된 화살표(→)는 '적다'를 '적다'로 바꾸어 쓰라는 의미이므로 그에 따라 '작다'의 의미를 함께 참고해야 한다.

② L : '작다'의 「2」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L은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의 「2」를 고려할 때 '작다'가 적절하다.

③ C : '작다'의 「3」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C은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의 「3」을 고려할 때 '작다'가 적절하다.

④ R : '작다'의 「4」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R은 '사람됨이나 생각 따위가 좁고 보잘것없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의 「4」를 고려할 때 '작다'가 적절하다.

⑤ R : '작다', '작다'와 '적다'를 고려할 때 '적다'가 맞겠군.

R은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 '적다'와 '적다'를 고려할 때 '적다'가 적절하다.

15 인용 표현 정답률 73% | 정답 5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자료〕

○ 직접 인용 :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에 넣어 인용하는 것. 조사 '라고'를 사용함.

○ 간접 인용 :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 조사 '고'를 사용함.

〔학습 과제〕

말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거. 지아가 “꽃이 벌써 쪼구냐!”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쪼갰다고 했다.

L.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라고 했다.

→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했다.

C.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했다.

→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R.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했다.

→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마.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① 거 ② L ③ C ④ R ⑤ R

거. 지아가 “꽃이 벌써 쪼구냐!”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쪼갰다고 했다.
거은 문장 종결 표현인 '쪼구냐'를 '쪼갰다'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L.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라고 했다.
→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했다.
L은 높임 표현인 '갔어요'를 '갔다'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C.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했다.
→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C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R.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했다.
→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R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마.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높임, 시간, 인칭, 지시,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적절히 다시 서술해야 한다. R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인칭 표현인 '너'를 '나'로 바꾸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16~45] 독서·문학

16~20 갈래 복합

(가)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뒀다」,

감상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힌 화자가 초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드러난 작품이다. 초록은 어리고 부드러운데, 불길처럼 맹렬한 기세로 건조하고 딱딱한 도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치밀한 관찰과 투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요한 가운데 역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포착한 초록의 역동적 생명력

(나) 김약권, 「두암육가」,

감상 하얗게 켜 머리를 들여다보며 대장부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할 일과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와 같이 운수나 하늘의 뜻에 달린 일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권유하며,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주제 늙음에 대한 한탄과 젊은이들을 향한 당부

16 표현성 공통점 파악 정답률 70% | 정답 1

(가)와 (나)의 표현성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어리고 연하여 휘어지는' 등과 '직선과 사각', '딱딱하게' 등이 대조되며 세상을 뒤덮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자연의 생명력이 부각되고, (나)는 '굳은 이다 빠지고 검은 털이 희었네',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에서 젊음과 늙음이 대조되며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후회와 탄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가)는 일부 시행을 '초록', '고요', '불길' 등의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지만, (나)는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 ④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나)는 '절다 하고 믿지 마라', '너희더러 하라'에서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지만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어저', '어우와'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지 않는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1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률 37% | 정답 ③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가)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잠깐 초록을 본' 것과 (나)의 '검던 털'이 하해진 모습을 본 것은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군.
(가)의 '잠깐 초록을 본' 것을 계기로 '초록'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사색이, (나)의 '검던 털'이 하해진 모습을 본 것을 계기로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 지난날에 대한 사색이 시작되고 있다.
- ②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를, (나)의 '발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베고프리'는 넉넉지 않은 현실을 초월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군.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에서 '초록'에 매료된 심리가 나타나며, (나)의 '발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베고프리'에서 지난날 자신이 농사를 지었더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여 현재 넉넉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를 통해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나)의 '늙은 후 또 내 되리'를 통해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는 '초록'이 '직선과 사각'의 도시 공간을 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늙은 후 또 내 되리'는 '청년'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호느적호느적' 살다가는 늙은 후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로,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가)의 '밀려 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초록'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의 '급제도 헛일'에서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있군.
(가)의 '밀려 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에서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초록'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나)의 '급제도 헛일'이라는 인식은 급제 이후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며, 이는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 ⑤ (가)의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초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놀라움을, (나)의 '이미 늙었구나'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에서 '초록'의 왕성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나)의 '이미 늙었구나'에서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초록'이 작품 속 공간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기〉에 근거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선지 선택에 있어서의 판단은 주어진 질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 〈보기〉는 (가)의 '초록'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한편, (나)의 화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③에서 (가)의 '초록'이 가지는 생명력은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식막한 도시 공간 속의 '수직선들을 지우는 힘'이다. 또한 (나)의 화자는 지난 삶을 반성적으로 회고한다는 점에서 '넉넉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오답들이 높았던 ②의 경우, 주어진 〈보기〉를 잘 읽는다면 (가)의 화자가 '초록'에 매료 '된 상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18 종합적 이해

정답률 80% | 정답 ②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 저물적인 고요', '저 축축한 불길'에서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술아나고 있는 / 저 저물적인 고요', '술거 불고 있는 / 저 축축한 불길'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서 웅송움지며 건조한 것들에게 술거 불는 '초록'의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 저 저물적인 고요'처럼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저물적인 고요', '축축한 불길'처럼 의미가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작품의 시상 전개 과정

정답률 65% | 정답 ④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어저 내 일이야'에 담긴 한탄은, 〈제2수〉의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한 데서 비롯되는군.
〈제1수〉의 '어저 내 일이야'에 담긴 한탄은, 〈제2수〉의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한 것에서 비롯된다.
- ② 〈제1수〉의 '노대에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로 이어지는군.
〈제1수〉의 '노대에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에서 드러나는 허망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제2수〉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반성은, 〈제4수〉의 '젊어서 호느적호느적'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나는군.
〈제2수〉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은, 〈제4수〉의 '젊어서 호느적호느적'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나고 있다.

- ✔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과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는군.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에는 넉넉하지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늙어버린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청년에게 '착한 일'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해당 구절에서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제5수〉의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은, 〈제6수〉의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었군.
〈제5수〉의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은, 〈제6수〉의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다.

20 시구의 의미 비교

정답률 86% | 정답 ④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에는 청자를 향한 원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드러나지 않으며,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다.
㉢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지 않다.

- ✔ ㉠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나무들이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진액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초록을 쏟아내기 위해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나)의 화자는 재산이나 과관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현재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자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운수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나타나지 않으며, ㉡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21~24 예술

닐 폭스, 「입체주의」	
해제	20세기 초 과학 문명의 발전과 기존 인식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등장한 큐비즘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기존 회화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회화 속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큐비즘은 대상의 세부 묘사와 고유색을 배제하고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대상의 전체 형태를 동시에 제시하기 위해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관찰하여 그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단순화와 다중 시점을 주요 표현 기법으로 하는 시기를 초기 큐비즘이라고 한다. 이는 관람자를 회화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만들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대상을 최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욕구는 큐비즘 화가들로 하여금 다중 시점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는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그 해체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그림에 묘사된 대상의 부피감이 상실되었으며, 색채 역시 초기에 비해 훨씬 더 자제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가 그림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자, 큐비즘은 대상의 형태를 다시 관람자에게 인식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대표적 표현 기법인 '파피에 콜레'는 종이를 캔버스에 직접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화면 밖 사물을 재료로 화면 안의 대상을 표현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러한 시기의 회화 양식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한다. 기존 회화를 거부하고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탐구한 큐비즘은 표현 대상을 실제 사물로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준 큐비즘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큐비즘의 등장 배경
2문단	큐비즘의 구현 방식
3문단	다중 시점을 적용하는 큐비즘
4문단	분석적 큐비즘의 특성

5문단	종합적 큐비즘의 특성
6문단	큐비즘의 의미

21 내용 이해

정답률 94% | 정답 ③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2, 3문단에서 큐비즘은 단순화, 다중 시점의 표현 기법을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1문단에서 큐비즘은 20세기 초 유럽의 과학 문명 발전과 이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이 글은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큐비즘의 목표와 표현 기법,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4, 5문단에서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의 단계를 거치며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 ⑤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
6문단에서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이 이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내용 추론

정답률 79% | 정답 ①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3문단에서 다중 시점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한 시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가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는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큐비즘은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그려 냈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이겠군.
큐비즘은 사실상 표현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이겠군.
대상의 해체는 그 형태를 최대한 여러 시점으로 보이며 한 시도의 결과이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이겠군.
큐비즘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3 내용 이해 및 비교

정답률 84% | 정답 ④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 낸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의 고유색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은 ㉡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과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격자 형태로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은 ㉠과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5문단에서 종합적 큐비즘은 대상의 극단적 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 밖 실제 사물을 재료로 도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의 해체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과 달리 화면 밖 재료를 통해 대상을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과 ㉡은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그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해체하였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사례 적용

정답률 83% | 정답 ②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가〉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cube)를 그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Cubism)'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 ①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집이 입방체 형태인 것은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이러한 기법이 그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2문단에서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에서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풍경 속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렸기 때문이다. 또한, 5문단에서 관람자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풍경을 실제와 다르게 그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겠군.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표현된 것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3문단에서 이를 위해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집에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를 배제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풍경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표현된 것은 색채를 제한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색채가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색으로 제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28 현대 소설

전성국,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팽 씨'가 유명세에 종속되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두 번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 그리고 있다. 달팽 씨는 우연한 기회로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이후에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식으로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거짓으로 인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달팽 씨의 몰락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 역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유명세에 따른 순수했던 선행의 변질

★★★ 등급을 가르는 문제!

2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률 51% | 정답 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으나, 공간적 배경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팽 씨의 모습'이나 '사치자처럼 포효하는 남편'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달팽 씨와 아들딸 간의 갈등, 달팽 씨와 아내 간의 갈등 상황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дна 어떤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팽 씨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었다.',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앎다고와 같이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결부될 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 자체만으로 어떠한 속성이 암시되어야 한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선지 속 조건을 잘 파악한 후, 작품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①의 경우 조건은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어떻게 결부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어진 작품 속에서 '공간적 배경'은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속성이 암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⑤를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전 소설과 마찬가지로, 현대 소설에서도 '서술자'가 작중 상황 속에서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를 드러낼 수 있다. 제시된 작품이 오직 서술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지, 혹은 서술자의 생각이나 평가가 개입되고 있는지를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26 내용 이해

정답률 83% | 정답 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들은 달팽 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해 했다.
청중들은 달팽 씨의 강연을 듣고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억거리는 등 강연 내용에 감명을 받았다.
- ② 달팽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의 발언으로 인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달팽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달팽 씨의 부인은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 ③ 종업원들은 달팽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종업원들이 달팽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달팽 씨는 A 주간 신문 기자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알릴 수 있었다.
A 주간 신문 기자는 달팽 씨의 아내만 만났고, 달팽 씨는 만나지 못했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35 내용 추론 정답률 50% | 정답 ⑤

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이 아니다.

③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은 인간의 타고난 인지 능력으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예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면서 나라의 통치 규범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과 관련이 없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률 71% | 정답 ③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평 씨'가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 씨는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그것에 중독되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

- 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나는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더욱더 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난다.
- ②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 **『달평 씨에게 씌워』진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과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 주는군.**
'달평 씨에게 씌워진'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는 달평 씨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얻게 된 명예와 유명세의 허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과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달평 씨가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예전의 달평 씨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 ⑤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인 '그네의 외침'은 달평 씨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이었던.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인 '그네의 외침'은 아내가 가족들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달평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달평 씨가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행위이다.

28 인물의 행위 이해 정답률 82% | 정답 ⑤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건의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이다.
㉠은 사건의 초점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으로,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 ② ㉠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이다.
㉡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는 아니다.
- ③ ㉠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은 상대인 청중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은 아들딸들의 추종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 ④ ㉠은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려는 행위이다.
㉡은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 **①과 ㉡은 모두 반향을 일으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다.**
㉠은 달평 씨가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켜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고, ㉡은 가족들과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켜 아들딸들에게 추종받고 있는 상황을 피함과 동시에, 세상의 관심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다.

29~3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이춘풍전』

감상 『이춘풍전』은 무능한 가장과 유능한 아내의 대비를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진취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조선 후기 고전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가장 춘풍과 남편이 자지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춘풍 아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수록 부분은 춘풍 아내가 주색잡기에 빠진 춘풍을 꾸짖는 장면과 평양에 가 춘풍을 구하고 추월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장으로 변장할 기회를 얻어 내는 장면이다.

주제 허위에 찬 가부장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 여성상

29 내용 이해 정답률 77% | 정답 ④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풍은 호조 돈 이천 냇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다.
춘풍 아내는 평양으로 떠난 남편 소식을 듣고 '호조 돈 이천 냇'을 다 갖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돈은 춘풍이 평양으로 떠날 때 호조에서 빌린 돈이다.
- ② 춘풍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춘풍 아내는 춘풍이 평양으로 떠나고 집안이 기울자 바느질, 길쌈에 힘써 일하며 살았다.
- ③ 춘풍 아내는 춘풍의 잘못에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묵을 바라고 있다.
춘풍 아내는 평양으로 간 춘풍 소식을 듣고도 '부부 둘이 화락하여 백년 동락하여 보자'라며 춘풍과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있다.

✔ **도승지는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두 번 맡게 되었다.**
도승지는 직년에는 평양 감사 두 번째 후보였고, 올해 평양 감사가 되었다. 따라서 도승지가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두 번 맡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대부인은 도승지에게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대부인이 문안 인사 온 도승지에게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어미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라며 차담상 올리는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30 말하기 방식 이해 및 비교 정답률 82% | 정답 ④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권위를 내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A]에서 춘풍 아내는 권위를 내세워 말하고 있지 않다.
- ② [B]는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B]에서 춘풍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뿐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③ [A]는 [B]의 내용을 예측하여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A]에서 춘풍 아내는 [B]에서 춘풍이 말할 내용을 예측하고 있지 않다.

✔ **[B]는 [A]의 반례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A]는 춘풍 아내가 춘풍에게 기녀를 좋아하면 말할 것이니 그런 잡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B]는 춘풍이 춘풍 아내가 제시한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색잡기를 합리화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다.

31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률 57% | 정답 ①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에서 춘풍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 ② ㉠: 앞으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에서 춘풍 아내는 유산을 다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근심이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에서 대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려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 ④ ㉡: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 동행을 권유하고 있다.
㉡에서 대부인은 춘풍 아내가 홀로 지낸다는 것을 알고 평양에 함께 따라가자 춘풍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⑤ ㉡: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다.
㉡에서 대부인은 춘풍 아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 있다.

3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률 77% | 정답 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남편이 자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 춘풍은 가장이지만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패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지 하지 않는다. 반면, 춘풍 아내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색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

- ① 춘풍이 가난을 불평하며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춘풍은 부모 유산을 다 탕진한 후 가난을 불평하기만 하고 아내에게 빌며 의지만 하는 무책임한 인물이다.
- ②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춘풍이 부모의 유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전곡 남용을 일삼고 주색잡기에 빠진 것은 경제관념이 없고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③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김 승지 댁 대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주도면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춘풍 아내가 도승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부인에게 접근한 것에서 춘풍 아내의 주도면밀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군.
춘풍 아내는 춘풍이 자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인에게 신뢰를 쌓고 마침내 비장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군.**
춘풍은 각서를 써서 아내에게, 춘풍 아내는 차담상을 차려 대부인에게 신뢰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춘풍이 각서를 쓴 행위는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3~38 인문

(가) 채인후, 『순자의 철학』

해제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심으로 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순자는** 위를 통해 **성을 변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핵심인 예는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의미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군주는 예의 근본으로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 주고 그들을 예의 길로 인도해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주제 후천적 노력을 통해 인간의 악한 성정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본 순자의 사상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적 배경
2문단	인간의 악한 성정을 전제하는 순자 사상
3문단	악한 성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심의 작용
4문단	악한 성정을 변화시키는 예의 기능
5문단	백성을 예의 길로 인도하는 군주의 역할
6문단	순자 사상의 의의

(나) 김용환, 『리바이어던-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해제 흠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흠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싸운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지닌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흠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쳐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이때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주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흠스의 사회계약론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적 배경
2문단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통찰한 흠스 사상
3문단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법칙으로서 사회 계약의 등장
4문단	사회 계약 과정의 두 가지 단계
5문단	국가의 탄생과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의 역할
6문단	흠스 사상의 의의

33 내용상 공통점 파악 정답률 72% | 정답 ②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회 현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전국시대 혼란을 해결하려 한 순자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17세기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려 한 흠스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 ③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왕권신수설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지 않다.
- ④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1문단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여러 사상들이 융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도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17세기 상황은 드러나 있지만 그로 인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밝히고 있지 않다.
- 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34 핵심 개념의 비교 정답률 72% | 정답 ②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군주는 타고난 성을 변화시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타고난 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군주가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통치자는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 ③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군자는 직분을 정해 주어 백성들이 사회적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인도한다. 그리고 통치자는 개인들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의 힘을 행사하여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④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군주는 성의 교화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하는데 성의 교화는 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치자는 공동의 힘이라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 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현실 정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이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35 내용 추론 정답률 50% | 정답 ⑤

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②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이 아니다.
- ③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은 인간의 타고난 인지 능력으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④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예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면서 나라의 통치 규범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과 관련이 없다.

✔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예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직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고, 이를 통해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에서 '심'은 인간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타고난 인지 능력이다. 순자는 '심'의 작용을 바탕으로 '위'를 축적하여 '예'를 실천하고, 이로써 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③의 경우, '심'은 타고나는 것이며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또한 아니다. ㉠ 위의 문장을 참고하면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순자 사상의 도달점이므로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⑤의 내용이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36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률 67% | 정답 ③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사회 계약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는다.
- ②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사회 계약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루어진다.

✔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한다. 공동의 힘은 두 번째 단계의 사회 계약에서 성립한다.

- ④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⑤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에서 개인은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두 번째 단계의 계약에서 그것을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에게 양도한다.

37 사례 적용 및 이해 정답률 69% | 정답 ⑤

(가)의 '순자'와 (나)의 '흠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인 개릿 하딘은 공유지에서의 자료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 떼들을 목초지에 풀어 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 ①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목동들이 위를 행한다는 것은 이익을 좇는 목동들이 심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② 흠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겠군.
흠스의 견해에 따르면, 목초지의 혼란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흠스는 목초지의 혼란을 자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③ 순자는 완전한 인적체가 만든 규범이, 흠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군.
목초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은 목동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순자는 완전한 인적체가 만든 규범인 예를 통해 혼란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흠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으로 혼란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④ 순자는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흠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흙스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절대적인 자유인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순자와 흙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군.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순자의 경우 심에 해당하고, 흙스의 경우 이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순자의 심은 타고난 인지 능력이므로 공포를 느껴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8 단어의 사전적 의미 정답률 87% | 정답 ③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일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모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다.
- ② ㉡ :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이다.

☑ ㉢ :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은 '양보'의 사전적 의미이다.

- ④ ㉣ :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명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이다.
- ⑤ ㉤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구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이다.

39~43 기술

서정숙, '나이테의 고고학'

해제 이 글은 나이테를 활용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나무는 매해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고 나이테는 심재와 반재로 구성된다. 따라서 나무의 나이는 심재와 반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는 환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나이테 너비의 변화 패턴을 활용해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연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먼저, 살아 있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고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와 패턴이 겹치는 부분을 활용해 이 둘의 연대기를 연결한다. 계속해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인 표준 연대기를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의 패턴과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주제 나이테를 활용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 규명 방법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나이테의 활용법
2문단	나이테의 구성 명칭
3문단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한 요소의 법칙
4문단	나무가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제한 요소의 법칙
5문단	연륜 연대기를 활용하는 연륜 연대 측정
6문단	연륜 연대기 작성법과 표준 연대기
7문단	연륜 연대 측정 방법 1
8문단	연륜 연대 측정 방법 2
9문단	연륜 연대 측정 방법 3

39 글의 전개 방식 정답률 60% | 정답 ④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1문단에 의하면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 의하면 나이테의 특성을 제한 요소의 법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나이테를 위치에 따라 심재와 반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문단에 의하면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 한다. 이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문단에서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한 요소의 법칙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40 내용 이해 정답률 50% | 정답 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
2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겹칠인 수피에 근접한 것은 심재가 아니라 반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반재는 생장 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띤다.
2문단에 의하면 진액이 존재하는 곳은 심재이고 반재가 밝은 색상을 띤 이유는 생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나무의 수령은 반재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1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수령은 반재의 수와 심재의 수를 합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3문단에 따르면 나이테의 너비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은 불가하다.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심재만 남아 있고 반재가 없는 경우에는 연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연륜 연대 측정 과정에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에 남아 있는 반재 나이테 수와 수령별 평균 반재 나이테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때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지문에 근거하여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는 단계가 중요하다. 선지에 제시된 문장을 지문에 주어진 정보로 변환하지 못했기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지의 문장을 지문의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서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이라는 조건은 지문에서 '반재가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정보로 바꾸어 찾아야 한다. 한편 ㉠의 경우,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는 조건은 '심재의 끝부터 겹칠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을 일컫는 '반재'라는 정보로 변환하여 이해해야 한다.

41 내용 이해 정답률 72% | 정답 ③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4문단에 의하면 동일한 수종이라도 나무의 성장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절하다.
- ②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6문단에 의하면 패턴 비교를 반복하게 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연륜 연대기는 나이테 너비의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한 것도 역시 변화 패턴이므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성장한 결과를 보여 준다.
나무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고, 나이테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나이테를 활용하여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므로 적절하다.
- ⑤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
6문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42 기술 적용 정답률 38% | 정답 ③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연륜 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

I. 측정 참고 자료

-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중 서랍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음.
- 서랍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함.

II.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반재 나이테 수 자료

표준 연대기	t값	G값	평균 반재 나이테 수	
			수령 100년	수령 150년
a산 소나무	3.7	69%	60개	77개
b산 소나무	3.2	60%	58개	65개

III.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 부여 자료

서랍1 연대기
서랍2 연대기
유물 연대기

표준 연대기
[절대 연도]

시계 ← 반재(57개) →

1700년 1800년

- ①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다. a산 소나무는 t값은 3.7, G값은 69%이므로 연륜 연대기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 일 것이다.
서랍1과 서랍2의 나이테 패턴의 중첩을 통해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 ~ 1800년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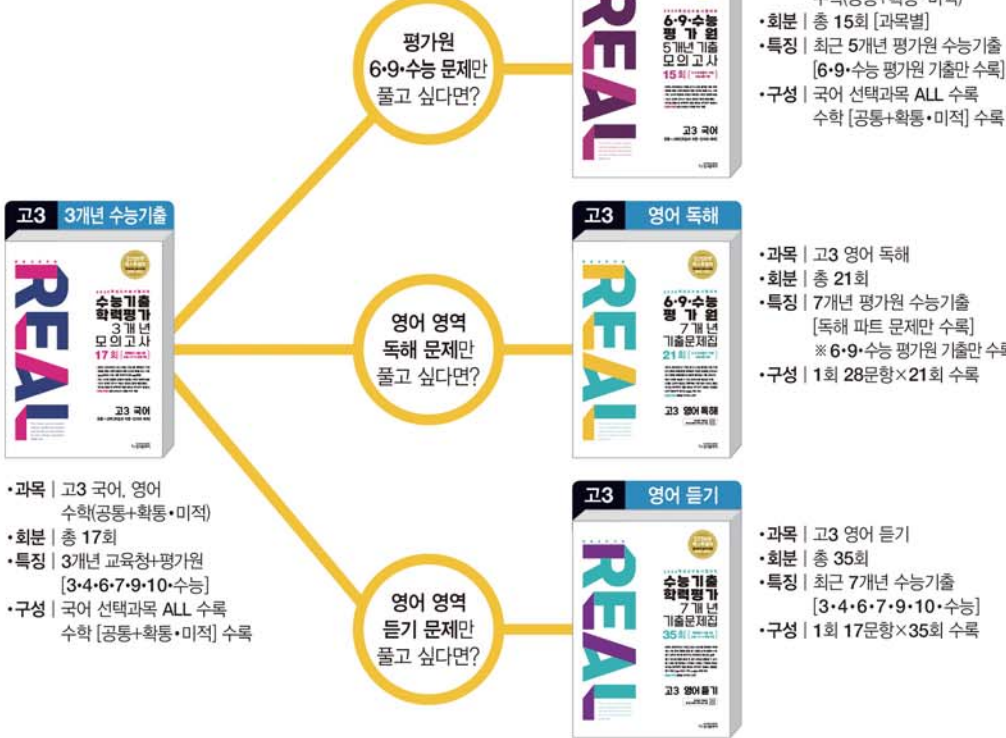
☑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자료 I에서 서랍1과 서랍2는 같은 나무로 만들었으므로 이 둘의 연대기를 연결하여 자료 II에서 제시된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유물 연대기와 비교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하는데, 자료 II에서 t값과 G값을 근거로 a산 소나무와 b산 소나무 중 a산 소나무의 정보를 활용해야 함을 알

2025 리얼 오리지널 BOOK LIST & MAP

• [고1·2] 내신+학력평가 대비



• [고3] 내신+수능 시험 대비



• 하루 20분 루틴으로 수능 1등급 잡기 •

영어 | 빈칸·순서·삽입 빈칸삽입 2020 2020

• 과목 | 기본(고1), 완성(고2) 실전(고3)

• 회분 | 총 20회 [과목별]

• 특징 | 5개년 수능기출 학력평가 영어 빈칸·순서·삽입 문제만 수록

• 구성 | 하루 12문항×20일 완성

※ A4 크기의 교재

미니모의고사 30회 미니모의고사 2630

• 과목 | 고1 국어·영어
고2 국어·영어
고3 독서·문학·영어

• 회분 | 총 30회 [과목별]

• 특징 | 7개년 수능기출 학력평가 하루 20분으로 수능 감잡기

• 구성 | 하루 12문항×30일 완성

※ A4 크기의 교재

		예비 [고1] 전과목 고등학교 첫 시험 & 3월 대비 • 반 배치 + 3월 [전과목] • 3월 전국연합 [전과목]				[고1] 전과목 학력평가 & 중간·기말 대비 • 6월 학평+기말고사 • 9월 학평+기말고사 • 11월 학평+기말고사	
			[고1] 3개년 16회 3개년 전국연합 12화+실전 4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1] 3개년 12회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2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고2] 3개년 16회 3개년 전국연합 12화+실전 4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2] 3개년 12회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2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고3] 3개년 3개년 교육청+평가원 [총17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통·미적)				영어 독해 [빈·순·삽] 하루 20분 20일 완성 빈·순·삽 • 기본(고1) • 완성(고2) • 실전(고3)
			[고3] 5개년 6·9·수능 평가원 기출만 15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통·미적)				[고3] 사탐·과탐 기출 최대 문항 1000제 50회 수록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지구과학 I • 생명과학 I
			영어 독해 영어 독해 문제만 최자별 구성 • 고1 영어 독해 • 고2 영어 독해 • 고3 영어 독해				영어 듣기 영어 듣기 문제만 최자별 구성 • 고1 영어 듣기 • 고2 영어 듣기 • 고3 영어 듣기
			[고1·2] 미니 모의고사 하루 20분 30일 완성 모의고사 • 고1 국어 영역 • 고1 영어 영역 • 고2 국어 영역 • 고2 영어 영역				[고3] 미니 모의고사 하루 20분 30일 완성 모의고사 • 고3 독서 • 고3 문학 • 고3 영어

▶ 문제편 뒤 표지와 본책을 펼쳐서 누르면 쉽게 분리됩니다. 문제편이 분리되는 것은 파본이 아닙니다.



리얼 오리지널 | 전국연합 학력평가 3개년 기출 모의고사 16회 [고1 국어]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imprint라이 발행일 2024년 11월 18일 등록번호 제 2017-0022호

홈페이지 www.ipsify.com 대표전화 02-433-9979 구입문의 02-433-9975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용규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혜민 임명선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혜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인쇄플라이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정가 17,500원